



광복 80주년

보훈,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 수상 모음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Korea Veterans Health Service



대 상	강○창	그녀의 마지막 인사	08			
금 상	이○경	링거줄에 피운 여름	12			
	김○진	특별한 존중	14			
은 상	김○진	18	김○정	56	장○환	84
	장○준	22	박○선	58	김○욱	86
	김○숙	24	이○순	60	김○희	88
	임○록	26	김○영	62	장○한	90
	이○우	28	이○영	64	김○민	92
	김○림	30	김○학	66	양○하	94
	김○무	32	진○선	68	박○영	96
	조○숙	36	유○희	70	강○희	98
	조○연	38	홍○현	72	조○정	100
	한○희	42	김○미	74	조○만	102
	채○정	44	이○재	76	김○훈	104
	박○은	48	김○호	78	이○온	106
	양○선	50	이○규	80		
	김○성	54	박○준	82		

공모전 개요

- **공모명** 보훈,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
- **공모 주제**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에서 경험한 감동적인 사연
- **공모 규격** 1,000자 내외
- **공모 기간** '25. 9. 1.(월) ~ 9. 21.(일), 21일간
- **공모 대상** 국민 누구나
- **공모 방법** 구글폼 접수
- **심사 절차** (1차) (주)미래아이엔씨 소속 작가 심사 → (2차) 외부 전문가 심사
- **심사 기준** 진정성(20), 창의성(20), 표현력(20), 공감성(20), 적합성(20)
- **수상 내역**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40명 (총 43명)
- **수상자 발표** '25. 10. 22.(수) / 공단 블로그 및 SNS 게시



[공모전 포스터]

공모 일정

접수 기간	2025. 9. 1.(월) ~ 9. 21.(일), 21일간
수상자 발표	2025. 10. 22(수) 예정 ※ 공단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커뮤니티

참여 대상

국민 누구나

공모 주제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에서 경험한
당신의 감동적인 이야기 (글자 수 1,000자 내외)

응모 방법

구글폼 접수



심사 기준

진정성	경험의 사실성과 진심 전달력
창의성	이야기 전달 방식이나 시선의 독창성
표현력	글의 구성, 문장의 흐름과 표현력
공감성	독자에게 감동과 공감을 주는 정도
적합성	보훈병원·보훈요양원에서의 감사 경험과의 연관성

시상 내역 * 총 43명

대상	신세계 상품권 100만 원 (1명)
금상	올리브영 10만 원 기프트콘 1매 (2명)
은상	투썸플레이스 커피 1잔 기프트콘 1매 (40명)

문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모전 운영사무실
☎ 02-6233-479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
수상집



대 상



강○창



Korea
Veterans
health
Service

그녀의 마지막 인사

2023년 1월 2일,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첫날. 설렘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대전보훈병원 재활의학과에 출근했다. 당시 재활의학과는 센터로 확장 공사 중이어서, 우리는 곰팡이 냄새가 났을 론볼링장에서 임시로 치료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곳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고관절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받으러 온 백발의 할머니. 치료가 만족스러우셨는지 치료가 끝나고도 내 이름을 연신 불러주셨다.

“강○창! 강○창!”

언제나 손을 크게 흔들며 반갑게 불러주던 그 모습, 밝고 진심 어린 미소는 나의 일상에 큰 힘이 되었다.

치료 시간마다 그녀는 여군 시절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었다. 또 한편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현재의 자신을 안타까워하며 물었다.

“언제쯤 다시 걸을 수 있을까?”

“저랑 열심히 하면 곧 걸을 수 있어요.”

“좋아, 열심히 해볼게!”

병원까지의 거리가 멀었지만, 그녀의 아들은 정성껏 어머니를 모셨다. 어느 날, 그 아들이 내게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다른 병원에서는 치료를 거부하세요. ‘강○창한테 가야 한다.’며 무조건 여기만 고집하세요.”

그 말에 울컥했다. 치료사로서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녀는 내게 마음을 다 주셨던 것이다.

2년 후 2025년, 큰 회복은 없었지만 늘 밝은 얼굴로 치료실을 찾아주던 그녀.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안 좋아 당분간 못 온다는 연락을 받고 2주간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겠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부어오른 얼굴과 심한 염증으로 예전의 모습을 찾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나를 알아보려 애썼다. 흐릿하게 남은 말소리는 그녀의 마지막 인사였다.

그리고 이틀 후, 96세의 나이로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이름은 김영숙 예비역 중령. 대한민국 여군 1기, 32명 중 마지막 생존자였다.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녀. 치료를 받으러 왔지만 오히려 나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따뜻한 에너지를 남겨준 그녀.

지금도 문을 열고 들어오며, “강○창!” 하고 불러줄 것만 같다.

그녀의 환한 미소가 그리운 오늘이다...

보훈,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
수상집



금상



이○경
김○진



Korea
Veterans
health
Service

링거줄에 피운 여름

새벽은 아직 잠들어 있는데
허리는 달처럼 굽어도
당신의 발걸음은 쉼터 화단을 향합니다.

주렁주렁 매단 링거줄,
삶이 채찍처럼 붙잡아도
그대의 손끝은 꽃을 쓰다듬고
나무와 땅에 물을 내려줍니다.

누군가에겐 잡초일 뿐인 풀조차
당신 손길 앞에서는 숨을 쉽니다.
곶은 손으로 심은 참외, 수박이 자라고
익어가는 열매를 바라보는 환자들의 매일이
작은 미소로 물결칩니다.

큰 병마저 꺾지 못한 마음,
아픔조차 남을 위해 감추고
오늘도 흙냄새 속에 희망을 심는
보훈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대.

꽃은 피어 환자를 위로하고
열매는 자라 마음을 달래며
그대의 삶은 아직 여름빛으로 흐릅니다.

꼬부랑 허리, 그러나 굽지 않은 마음
3103호의 조용한 별빛이여,
당신 손길 따라
오늘도 보훈쉼터 화단에 새 희망이 익어갑니다.

특별한 존중

부고장이 날아든다. 빈소는 너무나 낮익은 대구보훈병원 장례식장이다. 마음은 이미 그곳을 향한다. 버스를 타고 위문 가는 길, 작년 가을 이곳에서 함께한 시간이 가만히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특별한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을 우리는 인생에서 얼마나 자주 접할 수 있을까?

입구에 들어서니 단장을 벌써 마친 재활센터 건물이 위용을 드러낸다. 불황을 모르는 장례식장도 전혀 낯설지가 않다. 입관 때 고인이 가는 길을 세심히 보살펴주는 젊은 여성 장례지도사를 경이로운 눈길로 본 기억이 어제처럼 생생하다. 문상은 형식이 아니라 진정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통로이다.

나라의 빛을 되찾은 광복절, 올해로 팔순을 맞이하였다. 80이란 숫자가 나에게 더욱 뭉클하게 다가온다. 지난해 추석을 눈앞에 둔 어느 날 교통사고란 불청객이 예고도 없이 우리 가족을 이곳으로 인도하였다. 아버지의 세상 소품이 고장 난 시계처럼 멈춰 버렸다. 연세가 여든이셨다.

이른 새벽 발인날 엄숙한 분위기에서 영결식과 관포식이 거행되었다. 아빠는 월남 참전용사임을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랐었다. 부친의 관에 덮인 대형 태극기를 보는 순간 상심에 흠어져 어지럽던 마음이 굳기 잡힌듯 누그러졌다. 고인의 희생에 감사하고 국

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다가와 우리 유가족의 맘을 달래주었다.

나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들고 장의차에 올랐다. 머리에 서리가 앉은 참전용사들이 일렬로 서서 절도 있는 거수경례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끝까지 배웅하였다. 곁을 지켜주는 태극기도 마지막 여행을 함께 떠났다. 생채기가 난 마음에 새살이 돌아나는 순간이었다.

운구까지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그 공헌을 기억하고 최고의 예우를 다해주시는 분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장례식장 선양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인 시아버님의 조문을 마치고 나온다. 6.25 참전용사이셨고 장지는 국립영천호국원, 낮익은 지역명이 스쳐 지나간다. 엄마가 머무셨던 보훈병원으로 다시 향한다. 당시 영천에서 교통사고를 함께 겪으셨던 어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병실 신세를 지셨다.

동관과 서관 사이를 잇는 병원복도에는 또 하나의 치유공간이 있다. 여기 ‘갤러리 있다’ 에서 나는 발걸음을 잠시 멈춘다.

‘서로를 이어주는 공간에서 작품과 소통하며 치유받고 따뜻하고 행복한 기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장들의 걸작보다 더 울림을 주는 사진작품들의 주인은 다름 아닌 대구보훈병원 직원들이다.

환자와 보호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기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힘내라 보훈병원’ 환자와 가족들이 직접 쓴 응원 문장들 앞에서 휴대폰으로 그 마음을 담은 간호사를 포착한 사진은 다시 보아도 여운을 남긴다. 존중과 예를 다하는 가운데 서로 의지가 되는 곳!

회복을 위한 시간을 함께해준 분들이 있었기에 일상 속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모두가 우리 가족에게는 고마운 영웅들이다!

보훈,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
수상집



은상

Korea Veterans health Service

김○진	장○준	김○숙	임○록	이○우
김○림	김○무	조○숙	조○연	한○희
채○정	박○은	양○선	김○성	김○정
박○선	이○순	김○영	이○영	김○학
진○선	유○희	홍○현	김○미	이○재
김○호	이○규	박○준	장○환	김○욱
김○희	장○한	김○민	양○하	박○영
강○희	조○정	조○만	김○훈	이○온

명예로운 보훈의 성지, 보훈병원

그 옛날 전장을 누비던 피 끓는 젊음은 어느새 병마에 굴복한 노병이 되어 힘겨운 숨을 몰아쉬고 있다.

환갑이 되면서부터 삐걱대던 아버지의 몸은 칠십대에 들어서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굽은 등은 펴지지 않았고, 손발가락 마디가 쭈서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다. 자식으로서 형편이 어려워 병원에 자주 모시고 가지 못해 죄송스러웠다. 그때 아버지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준 곳이 바로 중앙보훈병원이었다.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용사다. 20대 초반의 나이로 월남전에 자원했다. 당시 어려움을 겪던 가족과 나라를 위해 굳은 의지로 결정한 일이었다. 먼 이국땅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젊음을 불태운 끝에 무사히 고국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는데, 보훈병원에서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전액 지원해준다고 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중앙보훈병원에 찾아갔다.

병원입구에 들어서자 여느 병원과는 분위기부터 달랐다. ‘명예로운 보훈’이라는 글씨가 적힌 비석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진료를 받기 위해 복도에서 대기하는 동안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을 만났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음을 옮기시는 분, 휠체어에

의지해 오신 분 등... 그분들의 삶속에 굳은살처럼 박인 숭고한 시간들이 중앙보훈병원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진료실에서 만난 의사선생님은 젊은 시절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겪었던 고통과 후유증에 대해 귀 기울여 주었다. 또 몸에 훈장처럼 남아있는 상처들을 하나씩 살피주었다. 아버지는 의료진의 진심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고 지난날의 얘기들을 꺼내놓으셨다. 그때 나는 어렵פות이 알고 있던 젊은 날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진료 후 검사 예약을 진행했다. 역시나 진료비는 무료였다. 병원비 전액 지원이라는 말 속에서 상이유공자들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다. 자식으로서 병원 한번 변변히 모시고 가지 못했던 죄송스러운 마음을 아셨는지 아버지는 나라에서 이렇게 잘 챙겨주니 당신 걱정은 하지 말라며 오히려 내 등을 다독여주셨다.

병원을 빠져 나오는 아버지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다.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었던 것도 감사했지만, 무엇보다도 아직 국가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으신 듯 했다.

먼 이국땅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던 아버지. 몸 여기저기의 통증들로 고통 받는 아버지를 볼 때면 과거의 그 상황이 자식으로서 야속하기만 했는데, 보훈병원에 다녀온 후부터 아버지가 가족과 나라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것이 느껴져 존경스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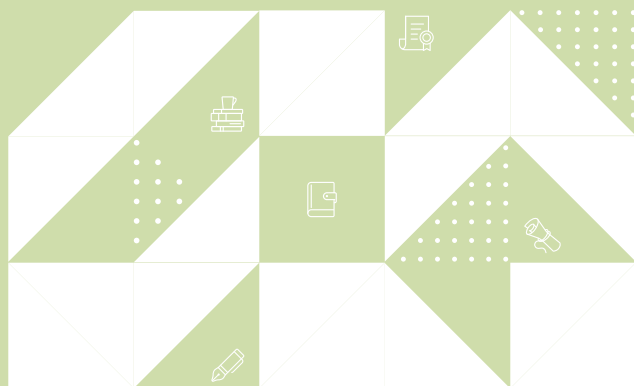
아버지는 중앙보훈병원에서 통증 검사와 치료를 이어나가셨다. 꾸준히 중앙보훈병원에 다니면서 질병 치료는 물론이고, 젊은 날의 상처까지도 깨끗이 씻어내셨다. 아버지는 보훈병원에서 삶의 빛을 다시 찾으셨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치유받았다.

월남전 참전용사인 우리 아버지와 나에게 보훈병원은 단순히 진료비가 무료인 병원이 아니었다. 과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북돋아 주는 보훈의 성지였다. 잊힌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닌,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이 땅의

영웅들을 위한 감사와 존경의 보금자리였다.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다독이는 보훈병원. 희생과 헌신, 그리고 감사 등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가치들을 일깨워주는 보훈병원. 보훈병원 덕분에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국가유공자들의 아픔이 치유와 희망으로 다시 빛나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다.

보호,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
수상집



체육대회 날, 멀리 돌아가 택한 병원

2019년, 비상근예비군 소집일에 체육대회가 있었다. 족구 공을 받으려 뛰어들다 착지가 틀어졌고, 오른발목이 안쪽으로 꺾였다. 금세 부어 올라 딛기가 어려웠다. 주변에 더 가까운 병원이 있었지만, 나는 예비역 대위로서 상황 설명과 서류 처리가 분명한 곳이 낯겠다 싶어, 보훈병원으로 향했다. 함께 있던 현역 담당자도 그 선택에 고개를 끄덕였다.

접수대에서 “소집훈련 중 부상입니다”라고만 말해도 절차가 매끄러웠다. 진료실에서는 발목 상태를 확인하고, 초기 관리 원칙을 짚어 주었다. 안정, 냉찜질, 압박, 거상 과학하게 움직이지 말 것,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점프·전력질주는 피할 것. 부대 보고에 필요한 진료확인서도 챙겨 주었다. 특별한 대접은 없었지만, 내가 어떤 맥락에서 왔는지 굳이 장황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곳이라는 안도감이 들었다.

대기 공간을 지나며 벽면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보훈’. 두 글자에 내가 지나는 시간이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같은 이유로 이곳을 찾았을 선·후배들이 떠올랐고, 통증 사이로 묘한 평온이 생겼다. 그날의 경험은 화려하지 않았다. 다만 필요한 때 필요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실함, 그리고 다친 발로도 다시 부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준 질서 있는 절차가 오래 남았다.

치료 계획을 받아 든 뒤, 나는 압박을 단단히 하고 복귀했다. 이후 며칠은 안내대로
얼음찜질과 휴식을 지키며 회복했다. 돌아보면, 내가 보훈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치료
기술만이 아니었다. 설명하지 않아도 맥락이 통하는 공간, 그 안에서 나의 시간도 국
가의 기억 어딘가에 조용히 놓인다는 감각. 그래서 다음 소집 통지서를 받을 때도, 나
는 아마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멀리 돌아가더라도, 기억을 잇는 곳으로.

빛진 모녀

서늘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애처롭게 흐느끼던 우리 모녀..

이제는 두 손을 마주잡고 야윈 뺨을 어루만지며 온기를 나눈다.

그런 막내딸의 손길이 좋으신지 엄마는 두 눈을 떴다 감았다 하신다.

그 모습이 아련하고도 사랑스럽다.

서러운 시절을 지나 와 감사한 나날을 보내며 이글을 쓴다.

처음 엄마를 요양원으로 모시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며 온다...

부모는 자식을 평생 책임지지만, 자식은 그렇지 못 함을 내 스스로가 증명이라도 하듯이...

온종일 이방 저방을 배회 하시다 끝내 몸져누우시면서 두려움과 괴로움에 울부짖던 엄마를 광주보훈요양원으로 모신지도 어느덧 6년째...

58세 젊으신 나이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신지도 14년이 되었다.

초로기치매의 평균 수명이 10년 내외라 하는데 아직 우리 곁에 계시니 존재만으로도 든든하다.

입소 때만 해도 엄마는 소문난 울보셨다.

가족의 품을 떠나 홀로 남은 설움이었을까..?

다 잃어버린 말 대신 고통의 포효였을까...?

엄마 못지않게 나 역시도 만만치 않은 울보 딸 이었다.

비교적 어린 보호자가 면회 때 마다 애통함으로 울먹일 때면 함께 눈시울을 붉히시던 고마우신 선생님들을 기억한다. “보호자님. 너무 걱정 마세요. 보호자님만큼은 못 하더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 어르신 모실게요” 위로하시던 따뜻한 말들이 멈춰버린 내 삶을 다시 살게 했다.

제 손으로 병드신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오늘도 엄마와 내가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으니 우리모녀는 광주보훈요양원에 큰 빛을 전 켜준다.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우리가 지역 내 으뜸 요양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 게 더할 나위 없는 복이다.

아기가 되어버린 엄마를 휠체어에 모시고 꽃과 나무들이 반기는 요양원 정원을 산책 할 때면 사람들은 말한다.

“어르신이 참 고우세요” 라며 보내는 안타까운 시선에도 우리모녀는 서로를 마주 보며 미소 짓고 있다. 꺼져 가는 생명임에도 나를 보는 엄마의 눈길이 여전히 따뜻하다...

이 더위가 지나고 나면 여느 때처럼 휠체어에 엄마를 모시고,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코스모스 피고 단풍진 나무 사이를 누비며 산책을 하련다.

우리들만의 행복한 순간을 엄마가 기억 하지 못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찬란 할 테니..!

고맙습니다. 광주보훈요양원! 감사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성철의 꿈은 아이돌이다.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 커다란 행복으로 삼는다. 성철은 OO보훈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청년인턴이다. 약 1개월 전 면접에 통과해 2층 요양동에서 일하는 성철의 일과는 출근하자마자 요양동 청소기 돌리기, 점심 식사 보조, 빨래 개기, 식탁 닦기, 저녁 식사 보조, 그리고 마지막 칼퇴근. 앞으로 5개월이나 이 무한 반복의 굴레를 버텨내야 하지만 그의 입가는 항상 미소지어져 있고, 노랫가락이 두둥실 떠다니고 있다. 그의 하이톤 인사 “안녕하세요!”는 어르신들에겐 귀여운 손자의 반가운 아침 인사가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주희는 아침부터 고민이 한가득이다. 약 2년간의 휴직을 끝내고 다시 돌아온 요양원이건만 업무는 다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설상가상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어르신 단체 생신 잔치 기획을 맡게 되어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수인계는 인수인계대로, 행사는 행사대로 골머리를 썩여 다시금 주말만을 기다리는 직장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생신 잔치 이틀 전, 주희는 머리를 굽적이며 식당으로 가 식판을 챙겨 음식을 받아 들고 자리에 앉는다. 맞은 편에는 청소 여사님과 떠들며 동시에 숟가락을 입으로 집어 넣는 성철이 앉아 있다. 그 순간, 주희의 머릿속 전구 하나가 불을 밝힌다. 주희는 두 사람의 대화에 스리슬쩍 끼어들며 성철에게 묻는다.

“성철 씨, 노래 잘해요? 아니, 좋아해요?”

“완전 좋아하죠”

성철은 고민이랄 게 없다는 듯 답한다.

“그럼 수요일에 어르신 생신잔치에 노래 하나 할까요? 노래는 성철 씨가 좋아하는 곡으로!”

“오케이”

성철의 선곡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다. 기쁜 생신 잔치에 잔잔한 노래가 웬말인가 싶었지만, 분위기는 정반대다. 성철은 모든 가사를 같은 음정으로 불러 모두의 웃음을 샀고, 어르신들은 귀여운 손자가 무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박수치기 바빴다. 흥이 넘쳐흐르는 생신 잔치다.

생신 잔치는 성철 덕분에 모두의 웃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함께 참석하셨던 보호자분들 또한 주희에게 “즐거운 행사 덕분에 웃고 돌아갑니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주희는 그때 생각했다. 보훈은 ‘웃음’으로 이어나가야 하는 것 아닐까? 용감하고도 두려웠을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었음에 우리는 ‘웃음’으로 그들의 나라가 이렇게 잘 이어지고 있다고 보답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또 한 가지 더. 성철 씨 초코파이 하나, 아니 한 통 챙겨줘야겠네. 하고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가명입니다.

새벽 세 시, 여섯 번째 출동.

“독거노인, 복통 호소.”

구급대원 3개월 차. 쉽지 않은 문진, 보호자 없는 어르신. 서류에는 빈칸만 늘어난다. 모른다는 답변인 구급일지, 환자를 대신해 응급실 접수까지 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보훈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술한 응급실 수용 곤란 끝에 간신히 찾은 보훈병원. 첫 방문이라 긴장된 눈에 들어온 화살표는 제각각이었다. 혹시 잘못 가면 혼날까 봐, 응급실 반대편 본관 접수처로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겼다.

무사히 접수는 마쳤지만, 주위를 돌아보니 건물은 크지 않은데도 긴장 탓에 방향을 잃고 말았다. 안절부절하던 그때, 환자복 차림의 어르신이 휠체어를 스스로 밀며 다가왔다. 야원 몸에 링거줄이 달려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응급실 찾나? 따라오게.”

앞장선 어르신은 미소 지었다.

“73년에 처음 와서 지금까지 다니다 보니, 병원은 내 집 같지. 길 잃은 사람이 있으면 안내해 주곤 해. 나도 예전에 구급대원에게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거든. 그 고마움을 돌려주는 거야.”

짧은 몇 문장 속에서 진심이 전해졌다. 어르신에게 보훈병원은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니라, 받은 도움을 다시 베푸는 삶의 터전이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서둘러 달려 나왔다.

“수고하셨습니다. 환자분 많이 힘드셨죠.”

환자를 환자로만 보지 않고, 헌신의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였다. 인계를 하는 동안 아까 그 어르신은 환자 곁에서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407호 환자분은 항상 다른 분들을 챙기세요.”

퇴근길, 그 출동은 오래 남았다. 보훈병원은 병을 고칠 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는 곳이었다. 그리고 존중은 다시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오늘도 구급차 시동을 건다. 환자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각자의 삶과 역사를 품고 있음을.

2년 전, 남양주보훈요양원으로 처음 발령받았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맡은 결산과 서무 업무는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의미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다. 매일 모니터 앞, 엑셀 속 숫자와 서류 더미를 넘기는 일의 반복이었으니까요. 요양원의 모든 일이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란 건 알았지만, 직접 어르신을 마주하는 동료들과 달리 제 일은 그저 차가운 숫자를 다루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회복지사 선생님 한 분이 다급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입맛을 잃고 식사가 어려우신 생계급여 어르신께서, 딱 하나, 육회가 너무 드시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은 생계비로는 겨우 한 접시 살 수 있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혹시 점심시간에 나갔다 오는 길에 육회 좀 사다 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저는 점심을 서둘러 먹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작게 포장된 육회 한 팩을 소중하게 들고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이 작은 플라스틱 팩 하나가, 며칠 동안 입맛을 잃으셨던 어르신께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 육회를 건네자,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제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육회가 어르신에 기운 없을 때마다 꼭 찾으시던 음식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영수증 한 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출 증빙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한 분의 영웅이 잃어버렸던 기력과 행복했던 젊은 날의 기억을 되찾아드린, 세상에서 가장 값진 증표였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직접 음식을 차려드리거나 말벗이 되어드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보

이지 않는 곳에서 숫자를 맞추고 서류를 처리하는 제 일이, 결국 어르신의 간절한 소망 하나를 이루어드리는 과정에 닿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모니터 속 숫자들은 더 이상 차갑지 않습니다. 그건 제게 주어진 가장 큰 보람이자, 저만의 방식으로 실천하는 ‘보훈’입니다.

20여 년 전, 군복을 입고 입원했던 보훈병원의 기억은 내게 여전히 선명한 파편들로 남아있다. 훈련 도중 팔꿈치 뼈에 심한 부상을 입고 낮선 병원 침대에 누워야 했던 스물두 살.

솔직히 말해, 당시 나는 막막함과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군 복무 중 다친 몸도 서러웠지만, 이제 막 시작된 나의 삶이 이대로 멈춰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대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하는 두려움이 더 컸다.

병실에는 나이 지긋한 국가유공자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의 삶이 투영된 듯한 희끗한 머리와 깊게 팬 주름이 내게는 그저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그분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지냈다.

그러다 문득,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야, 너 혹시 OO대 O반 아니니?” 그 질문에 나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 옆 침대 환자는 다름 아닌, 내가 입대하기 전 한두 번 밖에 만난 적 없었던 우리 학교 선배였다.

그의 이름은 김 모 선배. 그는 나와 같은 학교 학과의 선배였지만, 아웃사이더로 유명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군 복무 중 다리 부상을 입고 입원해 있었다는 그는 내게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었다. 그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젊은 날의 고민과 불안에 휩싸인 내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멘토가 되어주었다. 나는 그때 막연히 영화감독의 꿈을 품고 있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는 사진과 영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도 수많은 영화의 장면을 묘사하고 분석했으며, 유명 사진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이야기해주었

다. 그는 내게 단순히 영화감독이 되기 위한 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알려주었다. 낡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그와의 대화를 통해 한편의 영화처럼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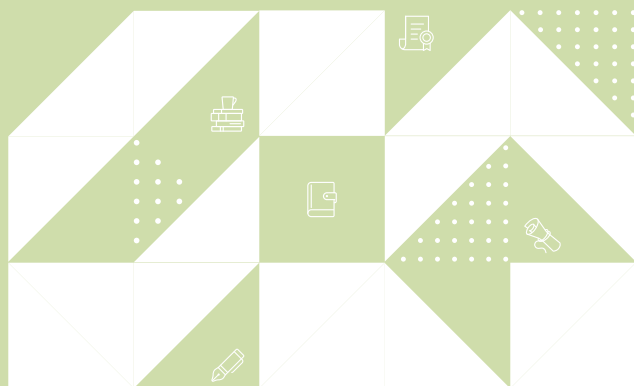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선배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다. 그는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제대 후 너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나를 흔들어 깨웠다. 나는 그제야 무의미하게 흘러보냈던 시간들을 후회하며, 남은 병원 생활 동안 선배와 함께 사진과 영화에 대한 지식과 삶의 지혜를 쌓아나가기 시작했다. 선배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술 분야의 깊은 지식을 알려주었고, 나아가 사회 생활과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까지 아낌없이 나누어주었다. 그와의 만남은 막연했던 나의 꿈을 구체화시키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4주간의 힘든 입원 생활, 병원에서의 시간은 고통스럽기만 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보훈병원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간호 덕분이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환자들을 살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불안한 내 마음을 다독여준 간호사들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손발이 되어주며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들의 헌신은, 내가 느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조금씩 덜어주었다.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그 시간을 온전히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20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나는 다른 지인을 문병하기 위해 다시 그 보훈병원을 찾았다.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병원 건물과 현대적인 시설은 낯설었지만, 병실 복도를 걷는 순간 20년 전의 그 공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예전처럼 창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젊은 병사,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나이 지긋한 환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그때 문득, 그 시절의 나와 김 모 선배가 떠올랐다. 당시 그가 내게 건넸던 따뜻한 위로와 조언,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금의 나는 그때 선배가 던져준 삶의 깨달음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과연 그때의 불안했던 나 자신에게 몇몇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다. 문병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길, 나는 알 수 없는 회한과 동시에 가슴 한편이
벽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20년 전 그곳에서 만난 선배와의 소중한 인연, 그리고 그
에게 배운 삶의 지혜가 비록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중요한 일부
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보호,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
수상집



나는 간호사

‘딸랑딸랑~’

손가락 끝에 방울이 흔들리고 있다.

소리의 울림이 점점 작아짐을 느낀다.

가을의 문턱. 중환자실 가장자리 침대에 오랜 시간 머물고 계시던 고엽제 국가유공자 내 아버지 연배와 비슷한 그분이 떠오른다.

방울소리가 쇠약해지면서 점차 호흡기 모드도 더 높아지고 가장자리에서 중환자실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었다.

내 호흡은 내 의지와 상관없고 방울을 흔들던 손가락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유일한 의사소통은 눈 깜빡임으로..

그마저도 명확하지 않아 많은 질문에 깜빡이다 눈물을 흘리던 그 분을 잊을수 없다.

1998년 5월 신규간호사로서 처음 대전보훈병원에 입사를 해서 시작된 중환자실 근무.

신규 간호사라 중환자실 내에서도 가장 경증인 환자를 배정받다보니 그해 봄... 유○○ 환자분과 처음 만나게 되었다.

중증근무력증 이라는 어려운 질환을 진단받아 그 봄에 호흡이 편하지 않아 기도 절개술을 하시고 그로 인해 말씀은 어려워도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신규간호사로서 찢찢매던 나의 어리숙함이나 부족함에도 같이 견여주는 마음으로 작은 보드판에 수고했어요.. 라고 메모해주시던 그 모습이 떠오른다.

그분의 침상이 한칸 한칸 증상으로 옮겨갈때마다.

그분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을때마다 방울을 흔들며 누군가를 호출하고 곁에 머물기를 원했던 그 굳은 표정을 잊을 수 없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도 곁에 머물러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분께 위안이 되었던 그 시절.

그렇게 나는 26년차 간호사가 되었다.

지금 내 일터에는 90세가 훌쩍 넘은 고령의 국가 유공자와 그 미망인들이 생활하고 계신다.

6.25 전쟁을 겪으며 전쟁 중 다치시거나 그 배우자를 잃은 미망인분들.

오랜시간 의지할 곳 없이 힘들게 사시다 보훈의 혜택을 받고 이곳 보훈원으로 터전을 옮기며 생활하시는 국가 유공자 생활시설.

국내 유일의 기관이다.

지금은 인공지능도 떨어지고 스스로 움직이기도 어려운 분들이지만 그분들 서랍속에 아주 오래된.. 당신이 가장 밋졌던 날들의 사진이 남아있다.

주름이 깊고 귀가 어두워져 고단한 잠을 청하는 우리 어르신들 곁에 나는 오늘도 그렇게 머물러 드리고자 한다.

중환자실은 생과 사가 교차하는 가장 절박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간호사는 단지 생명을 돌보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놓는 순간에도 가장 가까이 머무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중앙보훈병원 29년 차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의 첫걸음을 뗀 곳도 내과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처음 임종을 경험했을 때, 보호자들의 울부짖음에 저도 함께 울며 무너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중학교 시절, 할머니의 임종을 지켜본 이후 처음 마주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바쁜 일상에 쫓기고, 감정의 여유가 사라지면서, 언젠가부터 저는 슬픔조차 제쳐둔 채 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임종 환자를 보내고, 곧바로 응급실 환자를 받아야 하는 그 절박한 현실 속에서 눈물을 삼키는 일이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잊을 수 없는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심혈관계 중환자실 출입문이 열리던 순간, 병동을 울리는 절절한 울음소리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나는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이진 반칙이잖아... 여보... 제발 눈 좀 떠봐...” 가방도 내려놓지 못한 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커튼 너머, 앓던 얼굴의 딸과 무릎을 꿇은 부인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이미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딩동, 덩동’ 경고음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심장은 이제 멈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인은 침대 난

간을 붙들고 일어났다 주저앉기를 반복하며, 절박하고 기진맥진한 목소리로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부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옆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었습니다. 때론 위로의 말보다. 침묵 속에 함께 머무는 존재가 더 깊은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잊지 못하다가 “어제 남편이 스스로 운전해서 응급실에 왔어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더니, 도착하자마자 쓰러졌고…이제 눈도 못 뜨고, 말도 못 해요… 아무 말도 못 했는데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라고 울먹이며 제게 기대왔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역장이 무너지는 슬픔이자, 남편을 놓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의 절규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간간이 공감의 손을 내밀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간호사의 임무는 더 이상 의학적 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곁에 있음’이 전부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 아기예요. 아직 혼자 아무것도 못 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과 제가 남겨질 수 있나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끝까지 그 말을 다 듣게 했습니다. 그날의 위로는 거창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울고, 함께 들어주고, 잠시라도 세상이 무너진 자리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남편분은 몇 시간 후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부인은 떠나며 마지막으로 제게 인사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다시 인사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이 있어주셔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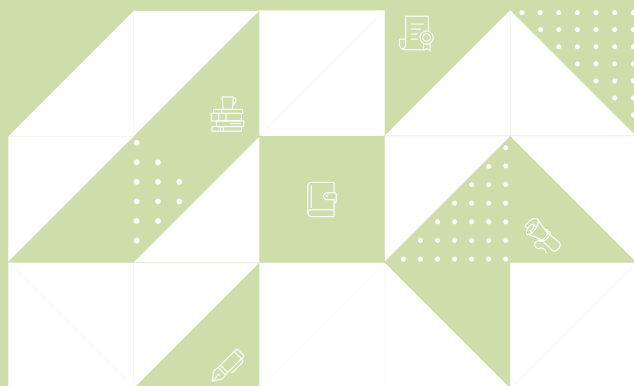
그날, 저는 한참을 멍하니 그 가족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다가 병동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심혈관계 중환자실은 유독 이별이 빠르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심장이 멈추는 그 짧은 순간은, 가족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29년의 간호사 생활 속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간호는 생명을 살리는 일인 동시에, 한 생을 함께 보내는 깊은 동행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말 한마디보다, 조용히 머무는 그 자리가 가장 따뜻한 간호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그 자리에, 누군가의 울음이 멈출 때까지 조용히 머무르겠습니다.

보호,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
수상집



할아버지의 마지막 웃음

[그날의 기억]

6.25 참전용사였던 할아버지가 보훈병원에 입원하신 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90세의 나이에도 꼳꼳하셨던 할아버지의 어깨가 조금씩 구부러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 가족은 어디서 모셔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보훈병원은 달랐습니다. 입원 첫날부터 간호사 선생님들이 할아버지를 “어르신”이 아닌 “참전용사님”이라고 불러드렸습니다. 그 호칭 하나에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작은 기적 같은 순간들]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가족도 잘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이상하게 6.25 전쟁 이야기만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병동의 김 간호사님은 할아버지와 대화할 때마다 그 시절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참전용사님, 그때 정말 추웠을 텐데...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할아버지는 김 간호사님에게만큼은 환한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할아버지에게는 치료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갑자기 의식이 또렷해지셨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도 힘이 있으셨죠. 병실에 들어온 야간 간호사님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구나. 나 같은 늙은 군인을 이렇게까지 돌봐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좋아진 게 너희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구나.”

그 말씀을 들은 간호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참전용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평화롭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건 저희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시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할아버지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남겨진 감사]

할아버지는 그 다음 날 새벽, 고요히 잠드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평안한 얼굴이셨죠.

장례식 때 보훈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분들이 조문을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참전용사님께서 저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셨어요.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살아가는 건지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보훈병원은 단순히 치료를 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곳이었다는 것을. 할아버지도,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것을.

지금도 할아버지의 마지막 웃음이 생각날 때면, 보훈병원에서 만난 그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김○○어르신과 두 남편과 땡칠이 큰 스님

김○○ 어르신은 그 남편 이○○ 어르신과 김해보훈요양원에 입소하였다. 김○○ 어르신은 2층 별님반에 이○○ 어르신은 3층 단감반에서 나름 즐겁게 요양원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김해보훈요양원 입소자 대표를 맡고 있었고 매우 건강한 편이라 요양원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셨다. 2025년 1월 김해보훈요양원으로 새로 부임해온 채○○ 원장님과 자연스럽게 좋은 라포를 형성하여 소통하며 지내게 되었다. 채원장은 부임 후 어르신들에게 원내의 획일화된 프로그램에서 활력을 불어 넣고 어르신들의 외출욕구를 해소해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고민하던 중 이○○ 어르신께서 전통시장을 가보고 싶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마침 설날을 앞두고 있어 채원장은 5일장인 인근 진영 전통시장 나들이를 실시하기로 하고 직접 어르신들을 인솔하여 진영 장날에 맞춰 시장에 가서 장터국밥, 부침개도 같이 나눠 먹고 각자 필요한 물품도 사서 돌아오는 길에 어르신들이 너무 좋다고 계속하자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역내 보훈시설, 문화시설, 놀이시설 등 외부 나들이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여 월3회씩 하게 되었다. 4월초 진해 해군사관학교 벚꽃놀이 나들이에 김○○ 어르신과 이○○ 어르신

이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채원장과 좀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그때 채원장은 김○○ 어르신과 같은 차를 타게 되었는데 이○○ 어르신과 다른 층에서 지내는 이유를 듣게 되었고 이○○ 어르신이 젊은 시절 속을 많이 썩혀 같이 지내기 싫어 김○○ 어르신이 다른 층에 입소를 희망하였다는 얘기, 젊은 시절 남편이 여성 편력이 심해 회사여직원과 인숙이네를 잤다는 얘기를 듣고 김○○ 어르신이 어린 딸을 등에 업고 인숙이네 방 앞에 가서 등에 업힌 딸의 발을 꼬집어 울렸더니 남편이 속옷 바람으로 쫓아 나왔던 일도 있었다고 했다. 그때 정말 미웠지만 자기 딸 울음소리 듣고 속옷 바람으로 뛰어나오는 걸 보고 자식들은 절대 버릴 사람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였다고 하셨다.

그런데 건강하시던 이○○ 어르신이 지난 7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강당 프로그램에 불참하게 되었고 이에 김○○어르신이 남편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던 차에 담당 복지사로부터 이○○어르신이 부산보훈병원에 입원하러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 가는 당일에 얼굴 한번만 보게 해 달라고 하였고 담당 복지사의 권유로 입원하러 가시기 전날 김○○어르신이 단감반 남편 방으로 2번이나 찾아가 얘기를 나누었고 병원가는 당일에는 3번이나 이○○ 어르신과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안되어 이○○ 어르신은 세상을 떠났다.

채원장은 부임 후 임종 돌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직접 직원들에게 임종 돌봄 교육을 실시하였고 인근 진영교회 목사님을 모셔 요양원에서 월2회 자원봉사로 예배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입소 어르신들 중에 종교가 불교이신 분들도 68분이나 되어 인근 절에 방문해 자원봉사 법회를 부탁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3월부터 예배는 시작했으나 불교법회가 없으니 불교가 종교이신 어르신들의 법회 요청은 지속되었고 이런 상황을 고민하던 채원장은 8월부터 스스로 법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추천법사는 어린 시절 절에서 생활한 적이 있기에 불법 공부는 나름 좀 했던 터라 혼자서 연습하여 8월25일 요양원 대강당에서 첫 법회를 열게 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해 조금은 긴장했지만 그런대로 잘 마무리하였다. 그 이후 채원장이 요양동 라운딩을 가면 일부 어르신들이 원장스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9월6일 백중을 앞두고 두 번째 법회는 9월5일에 백중 법회로 열었고 이전보다 더 많은 어르신과 보호자들도 참석했다. 추천법사는 발원문과 축원문을 직접 작성해 발원하고 김○○ 어르신 배우자이신 작고한 이○○ 어르신의 극락왕생을 축원하면서 천도 행사를 포함하여 법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그날 김○○ 어르신은 법회가 끝난 이후에도 대강당에 계속 남아 기도를 하였고 기도가 끝난 뒤 추천법사 손을 꼭 잡으면서 이○○ 어르신 천도제를 지내고 싶었는데 요양원을 나갈 수 없고 자식들에게 부탁하기도 어려웠는데 우리 요양원 추천 큰스님이 너무나도 잘해주어 큰절에 다녀온 것 같으며 추천법사에게 합장 인사를 몇 차례나 하셨다.

최근 김○○ 어르신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너무나도 책임감 강하고 자상하여 본인에게나 자식들에게 잘 해주었던 생각, 임종을 못 지킨 미안함을 주변에 종종 얘기하고 추천법사가 요양동 라운딩 하다가 만나게 되면 큰스님이라 부르며 합장인사를 하신다. 채원장은 김○○ 어르신이 두 남편을 두셨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달라진 김○○ 어르신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고 여러 불자 어르신들이 원장스님이라 불러 어쩔 수 없이 매월 1회 자원봉사스님을 구하기 전까지는 법회를 계속 열겠다고 약속했고 추천법사의 맹철이 큰 스님노릇은 언제까지 계속 될지~

김해보훈요양원에 훌륭한 자원봉사스님이 구해져 추천의 맹철이 큰스님 노릇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본다.

보훈,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
수상집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올해, 내 기억 저 깊은 곳에 새겨 놓은 어르신 두 분이 떠오른다.

애국지사 故이○문 어르신과 故김○남 어르신이다.

먼저 故이○문 어르신과의 인연은 2012년 8월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르신은 내가 광주보훈요양원 사회복지사로서 입소를 받은 첫 번째 어르신이었다. 어르신께서도 요양시설 입소가 처음이었기에 어르신도 나도 특별한 만남이라고 생각했다. 이○문 어르신은 일제강점기, 떠나면 인도네시아에서 고려독립청년당으로 항일 투쟁을 하신 애국지사이다. 2012년 당시 국내 생존 애국지사들이 100여명밖에 안계셨는데 애국지사 어르신을 담당하게 되어 영광이었다. 어르신은 진단명이 난청과 퇴행성 관절염이었으며 치매는 없었다. 신문과 책 읽는 것을 좋아하셨고, 기독교인으로 매일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셨으며, 노트에 글을 쓰는 것도 즐기셨다. 내가 기억하는 어르신은 참 점잖으신 분이셨다. 당시 서른도 안 된 한참이나 어린 나에게 단 한 번도 반말을 하지 않으셨으며 ‘박선생님’이라 부르며 나를 자주 찾으셨다. 그리고 작은 도움에도 늘 감사 인사를 잊지 않으셨다. 어르신을 생각하면 함께 따라오는 에피소드 몇 가지가 있다. 2013년 8월, 광복절 기획으로 방영된 KBS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 ‘적도에 묻힌 이름-고려독립청년당’ 편에 유일한 생존자로 어르신 인터뷰를 우리 요양원 치유정원에서 촬영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4년 5월에 세월호 사고가 있었는데 며칠 후가 어르신의 94번째 생신이셨다. 어르신은 희생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며 생신잔치를 취소하시기도 했다. 결혼을 앞둔 나에게 메모 형식으로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계명과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약 2년 6개월 동안 동고

동락하며 지낸 어르신은 자녀의 거주지에 가까운 남양주보훈요양원이 개원하면서 전 원하셨다. 이후 2016년 5월에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故김○남 어르신은 내가 담당하는 어르신은 아니었지만 ‘나의살던 고향찾기’ 프로그램에 함께하셔 어르신 고향인 전남 화순을 모시고 간 적이 있다. 요양원 내에만 계시다가 외출을 하시니 너무 좋아하셨던 모습이 생각난다. 시간이 흘러 어르신들과 이별한 지도 10년이 지났다. 최근 방영되었던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에서의 모습처럼 어르신들은 천국에서 삶을 다시 시작하셨을 것 같다. 너무도 훌륭하신 어르신들 모시기에 경험이 많이 부족했던 초보 사회복지사가 어느 덧 공단 14년차 사회복지사로서 성장한 모습을 지켜보신다면 얼마나 흐뭇해하실까 상상해본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어르신들과의 만남과 이별을 경험했지만 내게 아주 특별했던 애국지사 두 분과의 인연은 매년 8월 광복절이 다가올 즈음이면 웅크리고 있던 내 기억 속 추억들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마법 같다.

기도

첫 출근 준비하며 설레고 두근거렸던 그때의 제 마음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처음 입소를 하며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어르신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소서.

따뜻한 말 한 마디와 부드러운 제 손길이
그분의 불안함을 없애준다는 사명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부모님을 입소 시키고 가슴 아픈 헤어짐에 아쉬워 손을 놓지 못하는 보호자를 위해,
지금은 헤어짐이 너무 슬프지만,
면회 오실 때마다 편안해 지는 모습을 보며 안심 할 수 있도록
제 게 사려 깊은 언행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기나긴 밤 잠 못 이루며 밤을 지새고
떠나온 집을 그리워하며 한숨만 쉬었을 그를 위해,

부디 꿈속에서는 저와 함께 훨훨 날아 장독대에는 빗물이 들어 치지는 않았는지...
대문은 잘 닫고 왔는지...천천히 둘러보고
평온한 마음으로 달디단 꿈을 꾸며 주무시도록 살피 주소서.

짧은 시간 동안 그 어르신을 다 이해 했다고 설부른 단정을 짓는 자만심 대신에
늘 긴장하고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주시어,
어미 새가 먹이를 건네듯 좋아하시는 음식을 입안에 넣어 드리며
같이 행복 할 수 있는 그런 요양보호사가 되게 도와 주소서.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쇠약해지는 그를 보며
그와 내가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님을 인정하고
안된다는 말 대신에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유가 있는 행동임을 이해하고 그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허락 하시어,
그가 매일 매일 소소한 행복을 누리도록 살피 주소서.

또 다시 시간이 흘러, 거칠어 지는 숨 한번에 늘 제가 있음을 알리고
천 근 보다 무거워 지는 손 마디 끝에
제가 나비가 되어 그 손을 들어 올릴 수 있게 하시고,
세월의 무게가 잔뜩 누르고 있는 눈꺼풀 때문에 눈조차 뜨지 못해
내내 눈을 감고 있는 그를 위해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는 종달새가 되게 해 주소서.

이제 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그를 위해

소중했던 추억을 같이 하고,

그가 세상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알려 드리고...

그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두려움이 가득한 그를 위해

위로해 주는 떨리는 제 목소리가 그의 가슴에 닿기를 기도 합니다.

그날을 기약 할 수는 없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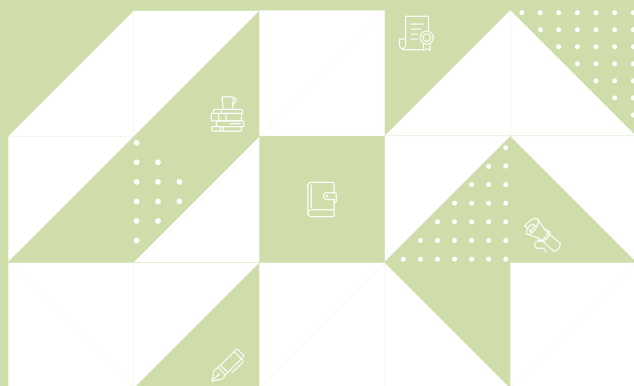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지만...

훨훨 날아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시기를...기도 합니다.

늘 제 첫 마음을 기억하며 저의 돌봄의 경험과 해아림이,

깊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보호,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
수상집



“평생 군인으로 사셨던 아버지는 흐트러짐 없는 분이셨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셨고, 아버지의 서재는 수많은 밑줄과 메모로 빼곡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제게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뭐였더라?”

단단했던 아버지의 세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가족 이름을 자주 잊으시고, 방금 대화한 일도 기억 못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를 모시고 중앙보훈병원을 찾았고,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 후 아버지는 잠시 예전의 총명함을 되찾으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서재를 정리하다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의 이름이 수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만은 잊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사실을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가족들에게 치매 환자를 대하는 방법과 감정적 부담을 관리하는 법까지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료진들은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의 아픔까지 보듬어 주는 진정한 치유자였습니다.

재작년 가을, 아버지는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기억을 잃으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막내딸인 제 이름만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투병 시간을 고통으로만 기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훈병원을 오가며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어드리던 그 시간은, 아버지 사랑의 깊이를 확인한 가장 아프고도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것을, 아버지는 삶으로 가르쳐주셨습니다.

올해는 어머니의 녹내장 수술로 다시 보훈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보훈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에 훌륭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아직도 아

버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보훈병원은 단순한 치료기관이 아닙니다. 국가가 영웅들에게 보내는 선물이자, 건강을 잃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보훈병원은 아버지가 우리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로 영원히 기억될 감사의 장소입니다.

부산보훈병원은 처음에는 국가유공자분들과 가족들만 다니시는 병원인 줄 알았습니다.

친척어른 중 몇 년째 의식 없이 자리에 누운 채로 투병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내분이 간병을 하셨고, 양육해야하는 자녀는 네 명이었습니다. 십년 가까이 눈으로 대화하고 성장하는 아이들 바라보고 치료받으며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집에서 병원으로 때로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니시다 마지막 부산보훈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부산보훈병원을 처음 가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에게만 진료가 허용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이 일이 훗날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빠의 장례식은 마무리 되고 엄마와 네 명의 자녀들은 다들 몸살을 앓았습니다.

저는 부산보훈병원에서 아주 가까운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기계공구를 제작하는 생산시설을 갖춘 제조업체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업무가 늘어나고 수주가 많아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라는 새로운 업무도 진행하였습니다. 생산현장에서 그라인더 등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전담으로 진행해 줄 동료직원들이 필요했습니다. 때에 따라 두 명 혹은 세 명 정도의 베트남 남자 직원들을 고용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손짓발짓을 하고 목소리를 있는 힘껏 높여 큰소리로만 말하면 알아듣는 줄 알고 무조건 큰소리로 소리치며 외국인 근로자들과 의사소통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찌감치 출근을 하였는데, 저보다 더 일찍 출근하신 과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인사

를 드리고 정문을 지나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몇 걸음 발을 떼었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더니 과장님이 회사 마당 중앙에 쓰러지신 것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회사까지 겨우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이마에는 열이 났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시더라구요. 시간은 아직 여덟시도 되지 않았고 의식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할지 순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외국인 근로자 분들 출근하였고, 연세 많으신 고문님도 출근하셨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분들에게 부탁해서 과장님을 차에 태우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나 고민하다가 회사에서 오 분도 채 걸리지 않는 부산보훈병원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응급실로 당장 달려갔고 열이 끓고 의식도 없고 어디가 아픈 줄도 모르겠는 과장님을 부산보훈병원 응급실 접수하여 구사일생 과장님을 살렸습니다. 그날따라 웬지 모르게 응급실에 사람은 또 많아서 한참을 기다리기는 하였습니다만 과장님 진료 받으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오빠 덕분에 위급한 상황 앞에서 부산 보훈병원 생각이 금방 떠올라 주었습니다. 훗날 과장님은 부산보훈병원 나름의 단골이 되셨습니다.

회사 공장 생산현장에는 다양한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대신 상해의 위험도 높습니다. 더욱이 내국인 아닌 외국인들이 작업하다보면 업무를 보다 다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에 베이는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외국인 근로자 담당업무를 보셨는데, 직원들이 다쳤을 때 병원으로 데려가는 일 또한 과장님이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때당시 직원 중 누군가 다치면 회사에서는 무조건 부산보훈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진단받고 치료하고 외래 다니고, 회사에서 가깝기도 하였고 믿고 다닐 만 하였습니다. 국가 유공자 분들이 다니시는 병원이니깐요. 지금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부산 보훈병원을 다닐 일이 없습니다. 부산 보훈병원 덕분에 그때 함께 근무하였던 외국인 근로자 분들에게 적절한 치료 해 드릴 수 있어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든든했고 의지할 수 있었던 부산보훈병원 감사했습니다.

저는 보훈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많은 환자와 가족들을 만났지만, 그중에서도 6.25전쟁 참전유공자였던 박○○ 어르신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특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돌아가셔서 더 이상 뵈 수 없지만,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과 말씀은 여전히 제게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6.25전쟁은 교과서와 영화, 다큐멘터리로만 접해왔기에 실제 참전유공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동에 입원하신 참전유공자 박○○ 어르신을 뵈게 되었을 때, “우와~ 참전유공자시네요~” 하며 놀라웠습니다. 어르신은 6.25전쟁에 대해 얘기해주셨습니다. “북한이 남침해 친구와 함께 군에 들어갔어. 훈련을 받고 바로 백마고지 전투에 투입했지.” 교과서 속 문장으로만 접했던 ‘백마고지 전투’라는 단어가 실제 경험자의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처음에는 신기했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르신은 폭탄 폭발로 어깨를 크게 다치면서 폭발 당시의 순간 기억을 잃었고, 함께 간 친구는 이미 죽어 있었다고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살아남은 전우들도 얼굴을 다쳐서 눈을 잃었지. 나만 사지가 멀쩡했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쓸쓸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짧은 고백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실과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저 자기를 뜻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나쁜 소리 할 거 없이 잘 살아야지.” 단순한 말씀이었지만, 그 안에는 전쟁의 아픔을 넘어 후세가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감염으로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그 목소리와 눈빛은 제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어르신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늘 참전유공자 모자와 조끼를 착용하시며 자신이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병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셨고, 늘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 짧은 악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제게는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박○○ 어르신과의 만남은 저에게 ‘기억하는 일’이 곧 미래를 지켜내는 일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저는 보훈병원의 간호사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존엄과 감사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르신이 남겨주신 말씀과 그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2023년의 8월은 내게 특별한 시간으로 남아 있다. 그해 8월 13일, 마지막 재일 독립 유공자이자 광복군이신 오성규 애국지사님께서 귀국하셨다. 1923년생인 지사님은 일제 강점기인 청년 시절,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였다. 광복 후 일본에서 머무르시다 남은 생은 고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뜻을 품으시고 마침내 조국 땅을 밟으셨다.

귀국 직후 중앙보훈병원에 입원하시기에, 병동의 담당 간호부장과 함께 첫 방문지가 될 병실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간호부장은 직접 그린 그림을 벽에 걸어두며 여러 준비를 하여 병실에 따뜻함을 채웠다. 병실에서 처음 본 지사님의 모습은 백 년의 세월을 온몸에 지니셨 으면서도 기품은 당당했고, 눈빛은 맑고 곧았다. 의료진과 함께 여러 건강 검진을 도와드리며 작은 검사 하나에도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세심히 살피며 ‘이분의 안위를 지켜드리고, 최고의 예우를 다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깊이 새겼다.

“한국 땅을 다시 밟으니 마음이 편안하다.”고 자주 말씀하셨기에 광복 이후 80년 타국 생활에 대한 고행이 얼마나 힘들셨는지 안타까웠다. 그해 8·15 광복절 행사에서 맨 앞자리에 앉으신 채 울컥하며 감격하던 모습이 TV 화면에 비쳤을 때, 혹여나 과로가 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병원 생활 중 맞으신 지사님의 100세 생신은 더없이 뜻 깊은 날이었다. 원장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신 미역국과 갈비찜을 준비하고,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 드렸다. 일본에서 가져온 가족 사진으로 액자를 만들어 드렸고, 지사님의 일본 가족들도 영상으로 함께 축하 노래를 불러 주었다. 생신을 축하하는 노랫소리가 병실 가

득 울려 퍼질 때, 지사님의 두 눈에 맺힌 눈물은 모두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지사님께는 존경과 보은의 마음이 늘 이어졌고, 의료진은 꼼꼼히 검진과 진료를 이어가며 최선을 다했다. 곁에서 작은 도움을 드리며, 나는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켜주신 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새롭게 배웠다.

보훈원으로 입소하시던 날, 태극기 무늬의 담요를 무릎에 덮으신 지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마워요. 나라를 지킨 보람을 크게 느끼고 가네요.” 그 말씀이 지금도 마음 깊이 울림으로 남아 있다.

언론은 지사님의 업적과 위대함을 대서 특필 했지만, 정작 본인은 마치 당연한 일어난 것처럼 담담하게 읊으셨다.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보훈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나는 그날 배웠다. 보훈가족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 역사를 이어가는 숭고한 사명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애국지사님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중 받고 따뜻한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진심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자 후세에게 남겨야 할 책임이라 믿는다. 지금도 나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사님의 근황을 보며, 고국에서 마지막 여생이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자 씨와 ○정이의 아름다운 동행

올해로 84세 ○자 씨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치매 요양등급을 받아 2000년 1월 28일부터 김해보훈요양원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유년시절 엄마, 아빠 따라 농사일을 해본 경험이 있었지만 결혼 이후에는 도시에서만 계속 살아오다 나이가 들면서 노쇠 해져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고 다른 보통의 치매어르신처럼 원내 프로그램 활동으로만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그녀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사랑이 찾아왔다. ○정이가 올해 1월1일자로 김해보훈요양원으로 부임하여 원예치료프로그램을 한답시고 요양원 동편 공터에 80여평의 텃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정이는 김해시 농업기술센터에서 3톤 짜리 굴착기를 빌려와 4일간 작업으로 텃밭을 일구고 상추, 감자, 고구마, 치커리, 대파, 아욱, 고추, 가지, 오이, 토마토, 수박, 참외 등 30여종의 작물을 심어 가꾸기 시작했다. 봄이 되자 나눔 숲 산책을 나간 ○자 씨는 새로 생긴 텃밭을 보게 되었고, 주변에서 ○정이가 만들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녀는 2층 담당 복지사에게 ○정이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햇살이 따뜻한 봄날 ○정이와 처음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 ○자 씨는 ○정이에게 녹두를 심어보고 싶으니 텃밭 한 이랑을 분양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정이는 녹두에 별관심이 없었지만 텃밭의 빈공간도 제법 많이 남아 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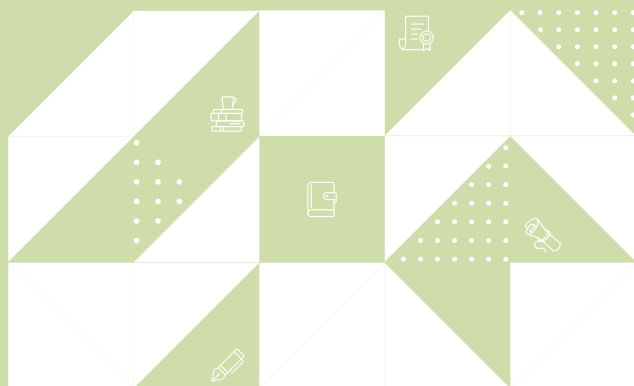
터라 흔쾌히 한 이랑을 ○자 씨가 녹두를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때부터 ○자 씨는 대상이 텃밭인지 ○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어르신들의 대부분이 그렇듯 그녀도 어린 시절 엄마, 아빠가 하시던 농사일을 어깨 너머로 보고 자라 농사일은 제법 잘하는 편이었고 야외 산책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텃밭을 돌보기 시작했다.

여름으로 접어들자 너무 더워서 야외 프로그램이 중단되자 ○자 씨는 텃밭에 심어 놓은 녹두뿐만 아니라 상추 등 다른 작물 등이 궁금해 담당복지사에게 묻기도 하고 한 번 가 볼 수 있는지도 물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이는 새벽에 나와 텃밭을 돌보다가 ○자 씨 아침식사가 끝나는 시간 6시50분에 맞춰 ○자 씨를 모시고 함께 텃밭에 가서 녹두도 따고 상추도 뜯고, 고구마순도 따고, 잡초도 뽑고 하면서 둘은 더 친해지게 되었고 ○자 씨도 그 시간을 기다리며 즐거워했다. ○정이는 혹여나 ○자 씨가 다칠까해 항상 한손을 꼬옥 잡고 텃밭으로 향했고 ○자 씨도 ○정리와 텃밭 데이트를 하는 날이면 얼굴이 봄바람에 연분홍 치마 날리는 아가씨가 되어 환하게 피어났다. ○자 씨는 ○정리와 함께 수확해온 녹두도 까서 말리고 고구마순 껍질도 같이 까면서 요양원 생활에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느끼며 늘 웃고 다니며 육안으로도 확연히 건강해지는 모습이 되어갔다. ○자 씨가 재배한 녹두는 그녀의 뜻에 따라 ○정이가 요양원 식당 영양사에게 부탁하여 녹두밥을 지어 입소해 계신 요양원 어르신들과 나눠 먹었고, 또 수확한 가지나 고구마순, 풋고추, 박 등은 ○정이가 직접 요리하여 직원들 점심시간에 반찬으로 다 같이 나눠 먹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정이는 잊지않고 만든 반찬을 한 그릇 담아 ○자 씨에게 가져다 주었다. 반찬을 받은 ○자 씨는 너무나 고마워하고 맛있게 드시곤 했다. ○자 씨에게 그 반찬은 단순한 반찬이 아닌 삶의 활력과 ○정리와 함께 한 추억이었다. ○자 씨는 지금도 ○정리와 가끔씩 텃밭에 나간다. 텃밭에 나가는 날이면 그녀의 표정부터 다르다. 너무나 행복한 웃음을 짓는다.

○자 씨와 ○정리 사랑, 아름다운 동행이 쭉 계속 되기를.....

초등학교 4학년 무렵, 토요일이면 부모님을 따라 수원 보훈요양원에 갔다. 차갑게 식은 공기와 낯선 약품 냄새가 섞여 몸을 간질이듯 스며왔다. 보라색 실내화를 신는 순간에야 비로소 이곳을 걸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듯했다. 병실 문을 열면 등받이 없이는 앉기조차 힘들어 보이던 할아버지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다가가자 환한 미소와 함께 들려온 한마디, “예빠.” 어색했지만 그 따스한 눈빛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복도에는 분홍빛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며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었다. 어린 나는 그 모습이 다행이라 느꼈다.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 대신 발이 되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처럼 다가왔다.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던 나날은 어느새 열 해가 흘러갔고, 그 시간 속에는 할아버지를 잃고 찾아온 공허함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가 시끌벅적하게 들어오기 전, 할아버지는 늘 창밖의 푸른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다.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제 스물한 살이 되어 돌아보니, 그 하늘은 당신이 지나온 전쟁과 이별의 세월, 그리고 자유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말없이 품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할아버지, 나 이제 스물한 살이야. 밥도 잘 먹고, 잠도 많이 자. 할아버지가 증얼거려 내가 잘 듣지 못했던 말들도, 사실은 다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됐어. 예쁘지 않은 얼굴을 예쁘다고 불러 주던 그 미소가 내 마음을 얼마나 단단히 붙들고 있었는지도. 그리고 나와 같은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싸워주어 고마워.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진 그 용기를 이제는 내가 기억할 차례인 것 같아. 할아버지, 이제 하늘에서는 싸우지 마세요. 그곳에서는 충성도, 냉기 어린 바람도 없기를 바라요. 나를 바라보며 웃던 그 얼굴로, 다시 한 번 나를 감싸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보고 싶습니다.

보호,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
수상집



쿵! “여기 노인분이 쓰러지셨어요!” 중앙보훈병원 로비에서 환자가 쓰러졌다는 소리에 여러 사람이 모여들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져간다. 옆을 지나가던 의사는 쓰러진 환자의 주치의가 되고, 바쁘게 오가며 일하던 간호사는 전담간호사가 되어 환자를 돌본다. 환자가 큰 이상이 없다고 의사가 진단 할 때쯤 민원실에서는 휠체어를 가져와 환자분을 응급실로 모시고 간다.

노인이 많은 병원, 그중에서도 민원실이라는 곳에 근무하다 보니 이런 일은 꽤 빈번히 볼 수 있었고, 병원이라는 차가운 이미지 안에서도 ‘보훈’병원만의 따뜻한 사연들을 누구보다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이번 일도 시작이 어려웠지, 보훈병원 의료진들은 누구하나 낙상환자가 발생하니 무시하지 않고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제 일처럼 나셨다.

또 한 번은 진료과에서 급히 도움 요청이 왔다. 노인 환자분이 혼자 진료를 보러 오셨는데, 이름을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시고 멍하니 앉아만 있는 것이 치매환자 같다는 거였다. 진료과에서는 수십 분 동안 어떻게든 환자분 가족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민원실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고, 직원분이 환자분을 걱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는지 전화통화 속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기에 한달음에 진료과로 내려갔다. 우리는 환자분의 가족을 찾기 위해 환자정보를 보았으나 가족의 연락처는 보이지 않았고, 경찰 협조 등 다른 방법을 찾으려 잠시 사무실에 잠시 갔다온 사이 어르신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치매환자에 대한 걱정에 진료과와 민원실 직원들은

병원을 뛰어 다녔고, 잠시 후에서야 CCTV에 찍혔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CCTV 열람이 가능한 중앙감시반으로 황급히 뛰어 내려갔다. 중앙감시반 직원들은 두서없는 나의 말에도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환자 분을 찾는 걸 도와주었고, 다행히 병원 밖으로 나가는 환자분을 모시고 올 수 있었다. 그때 도착한 경찰관도 고생하는 병원 직원들의 모습을 옆에서 보며 환자분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였고, 우리는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치매환자에 대해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보훈가족을 보면 마음 아픈 점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국가유공자 분들이 여유롭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어떤 분은 있는 돈을 아껴서 아픈 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기부를 한다고 하셔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음에도 베풀 줄 모르는 나를 부끄럽게 했다. 국가유공자 분들은 만족을 알고 감사함을 안다. 본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도 ‘나라가 이런 것 까지 해줘?’라며 고마워하며 순박하게 웃으시는 분들도 많이 봤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민원실의 고객지원과장 자리가 자꾸만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하고 싶은 질문을 되새김질 하면서 마음속으로 삼켰다. “혹시 나라를 위해 했던 희생을 후회하진 않으시냐고? 선생님이 가지 않은 길에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처럼 선생님의 과거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셨냐”고 말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후회하신다면, 저희가 정말 죄송 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담양에 거주하고 있는 24살 진○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 대학교 졸업을 한 뒤 지난 4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약 5개월 동안 광주보훈요양원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으로 인턴 생활을 했어요.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청했을 때 사무행정 직무로 들어가게 돼서 어르신들과 직접적인 교류는 별로 없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요양실이 있는 3층에 배치되어 매일 아침 진행되는 아침 건강 체조, 각종 프로그램, 식사 보조 등 다양한 업무를 맡으며 어르신들과 매일 소통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 많은 어르신의 이름과 얼굴을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주말을 제외한 모든 날을 요양원으로 출근하며 매일 어르신들을 뵙다 보니 금방 적응하여 재미있게 일을 다녔어요. 광주보훈요양원에서는 매일 오전 9시에 아침 건강 체조를 위해 어르신들이 각 층에서 모이곤 해요. 어느 때처럼 체조를 하기 위해 어르신들을 모시는 중이었어요. 3층 정든방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정○○어르신께서 제게 “이따 점심먹고 내 방에 좀 와 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께서 개인적으로 저를 요양실로 부른 건 처음이라서 무슨 일인지 의문인 상태로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지하 구내식당에서 서둘러 밥을 먹고 어르신께 향했어요. 저를 보시고는 반가운 얼굴로 안 오는 줄 알았다며 이불 아래서 핸드타올로 감싼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두 번 감싼 핸드타올 두 개에는 여러 종류의 사탕과 유과가 들어있었어요. 보자마자 웃음이 나왔죠. 제게 주시려고 휴지에 싸놓고 기다리신 그 마음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어르신께 이런 말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귀엽다고 느껴져서 사진도 찍어봤어요. 어르신 침대에 앉아 같이 대화를 나누며 제가 아직 고등학생인데 여기서 일하는 줄 알았다며 안쓰럽게 생각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덜어

드리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어르신께서는 제게 아침마다 웃는 얼굴로 휠체어 끌어서 주어서 고맙다며 항상 건강 잘 챙기고 심심하면 방에 놀러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월 말부터 일하며 어르신들께 드린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돌려받는 느낌이라서 너무 뿌듯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던 날이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인사드릴 때마다 손녀딸이라며 예뻐해 주시는 어르신, 24살이라고 말씀드리자 빨리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기분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인턴들에게 항상 우리 예쁜이들 왔냐고 말씀해 주시는 어르신 등등 재미있고 따뜻하게 해주신 어르신분들은 5개월이라는 시간에 활력을 넣어 주셨어요.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 준 광주보훈요양원에 감사의 말 전합니다.

9월 어느 날 보훈병원 원무과에서 공모전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곳에서의 경험을 되새김질하듯 떠올려 보았다.

작년 3월 새벽 남편이 뇌경색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을 거쳐 여러 병원의 입, 퇴원을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내 몸은 조금씩 망가지고 있었다. 이미 오른쪽 유방암 4기 환자였던 나는, 추가로 왼쪽 유방암 진단과 수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자신이 환자란 생각은 뒤로 한 채 남편의 간호를 우선시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보훈병원 재활센터에 있는 마음치유센터에 들어가 보았다. 센터 선생님과의 만남은 내게 큰 힘과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한번은, 선생님께서 “그냥 우세요. 집에 혼자 계시면서 울지 마시고 여기서 다 울고 가세요.”라고 말씀하셨다. 참을 새도 없이 어린 애처럼 펄펄 울고 말았다.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선생님의 따스한 그 손길은 마치 날 자주 위로해주던 가족의 손길과 같았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고 위로받았다. 상담이 이어질수록 나의 마음이 시나브로 평온함을 되찾아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젠 집에 와서도 울지 않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닥친 남편의 건강 악화란 현실과 어려움을 이해받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격려도 받을 수 있었다. 때로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해 속상함을 느끼는 내 마음도 다독여 주신 덕에 스스로의 삶이나 태도를 비판하던 자학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마음치유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힐링 캠프도 추천해주신 덕에 이젠 매일 설렘으로 가득하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상담센터를 못 보고 지나쳤다면, 혹은 부끄러움과 망설임으로 노크조차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면 내 마음을 누구에게 토로할 수 있었을까...

상담을 통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며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가르쳐주신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 얻은 힘으로, 남편이 다시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이겨낼 것이라 씩씩하게 다짐해 본다.

할아버지는 군 생활 도중 불의의 사고로 한쪽 눈을 잃으셨다. 어릴 적 나는 그 눈을 마주 보는 것이 두려웠다. 검은 구멍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묵묵히 흘러나오는 침묵은 어린 마음에 알 수 없는 공포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그 눈 속에 담긴 깊이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길 위에서 감내한 책임의 흔적이었다.

내가 초등학생 때 쯤에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보훈병원에 입원하셨다. 병실 안에는 각자의 상처를 지닌 노병들이 함께 누워 계셨다. 어떤 분은 다리를, 어떤 분은 손을, 그런데 놀라운 건, 할아버지를 포함한 그 병실의 모든 분들이 단 한 번도 군에 대해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었다. “내가 다친 건 나라 잘못이 아니다. 나는 군에 몸을 바쳤고, 그걸 후회하지 않는다.”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담담히 말씀하셨다.

그날 병문안을 마치고 나선 복도에서 나는 생각했다. 한쪽 눈을 잃었으면서도 원망 대신 감사와 긍지를 간직할 수 있구나, 나는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 배웠다.

어린 시절에는 무서웠던 그 눈이, 이제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빛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잃은 것이 아니라 남은 눈으로 세상을 더 깊이 바라보셨다. 그리고 그 시선은 나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다. “상처도 자람이 될 수 있다.”

보훈,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
수상집

아버지가 보훈병원에 입원하셨던 어느 봄날, 병문안길에 올라 병동을 천천히 둘러 보았습니다.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잊고 지냈던 가족과 건강의 소중함이 새삼 가슴 깊이 와 닿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같은 병동에 계신 한 어르신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80대 참전용사였고,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얼굴로 조용히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전쟁터에서의 고통과 동료들의 희생, 그리고 그 시절 잃어버린 여러 것들에 대한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목소리에는 그 당시의 고단함과는 다른, 자랑스러운 자부심과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으면 참 외로울 뻔했다. 이렇게 관심 갖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단순한 병문안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과 기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치료와 병간호에 집중하면서도 그분과 나눈 대화는 내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진정한 보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억을 잇는다’는 말이 단순히 과거를 되새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희생과 사랑, 그리고 삶의 가치를 오늘과 미래로 이어가는 일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는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보훈병원은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닌,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며, 환자 한 분 한 분의 삶에 존엄과 따뜻함을 더하는 곳임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 어르신들의 미소와 따뜻한 말씀이 앞으로도 나의 마음에 큰 등불이 되어, 작지만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훈의 가치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기억을 잇는다는 것은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에, 이 만남은 내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배움의 보훈병원

연말 근무평정이 나가기 전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올해 근무평정은 그 어느 해보다 머리가 아프겠어. 교무부장과 연구부장 사이에서 누구를 최고점수 줘야 할지……”

나는 승진을 위해 몇 년 전부터 최고로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손 연구부장이 경쟁자로 나섰으니 나의 심기는 불편했고 직원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날짜가 다가오자 나는 무척 불안했고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길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런데 손 연구부장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이다. 학교 친목회장인 나는 손 연구부장의 애사에 팔을 걷어붙일 수밖에 없었다.

“신탄진에 있는 대전보훈병원 장례식장이랍니다.”

나는 여러 병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나 대전에 보훈병원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렇다면 손 연구부장이 보훈가족이란 말인가?’

나는 보훈병원이라는 말에 손 연구부장이 보훈가족이란 유추해석을 내렸다. 왜냐하면 보훈이 무엇인가? 나라에 공을 세워 국민들이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이 아니던가? 나는 여러 루트를 통해 손 연구부장의 가족사에 대해 알아봤다.

“손 연구부장의 아버지께서 한국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서 부상당해 다리를 절단하고 그 후유증으로 보훈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어렵게 살았어요.”

손 연구부장의 가정형편을 잘 아는 사람의 전언이었다. 순간 그 어른을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한 죄송함이 엄습했다. 호국보훈의 달 봉사활동으로 현충원의 묘비나 다투 줄 알았지. 가깝게 있는 보훈가족을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으니 말이다. 그리고 보훈병원과 요양원에는 나라를 위해 공헌한 보훈가족이 많이 입원해 있다고 했다. 나는 손 연구부장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찡했다. 나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저를 이번 승진대상자에서 제외시켜 주시고 손 연구부장을 올려주세요.”

살아생전 보훈 한 번 해보지 못했는데 기관장에게 내 뜻을 전하지 마음이 편했다. 그리고 두어 달이 지났다. 그런데 내가 승진을 한 것이다. 어떤 일인지 이유를 물으니 내가 보훈병원의 상가에서 열심히 도운 것에 손 부장이 감동을 받았단다. 그래서 손 연구부장이 승진을 양보했단다. 이렇듯 서로 양보를 하니 근무평정이 무척 쉬웠으며 기관장이 웃었다. 기껏 보훈을 한다는 것이 받은 꼴이 되고 말았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 대구보훈병원에서 근무하며 환자분들께 배식하던 기억은 내게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경험이다. 당시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었고 업무의 모든 절차가 달라졌다. 환자식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평소 같으면 쟁반에 정갈하게 담아 배식하던 음식들은 일회용 용기로 옮겨졌다. 단순히 일회용 용기에 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금 개별 비닐로 한 번 더 밀봉해야 했다. 음식을 통해 혹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을지도 모를 최소한의 모든 위험도 줄여야 했기 때문이다.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식사 준비 시간은 평소보다 두세 배나 더 걸렸다. 하나하나 비닐을 씌우고 밀봉하는 과정은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갔다. 처음에는 서툴던 일이 익숙해지면서 나는 환자분들을 향한 보호와 배려의 무게를 조금씩 느끼게 됐다.

주방 직원들이 배식을 하러 가면 방호복을 입은 병실 담당자들을 만나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받아 환자들에게 전달했다. 병동에는 차가운 공기와 사람들 사이의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다. 그렇게 적막하기만 한 병동에서 마지막 식사를 전달하고 돌아서는 데 환자 한 분이 병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정말 안심이 됩니다.”

사실 나는 주방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딱딱한 일회용 그릇에 담겨 비닐까지 싸여 나가는 배식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볼품없는 용기와 비닐 한 장은 단순한 위생과 보호를 넘어 환자들에게는 안전함과 위로를 전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실에서는 식사가 유일한 낙이자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더욱 정성껏 준비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들기 시작했다. 식사를 건넬 때마다 무겁기만 했던 내 마음 속에도 작은 자긍심과 용기가 생긴 순간이었다.

매번 불편한 절차들이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후 나는 환자들이 안심하며 식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조금씩 보람을 느꼈다. 모두가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는 일이자 하루 중 가장 큰 낙이 되는 순간'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경험한 특별한 배식은 내게 사소한 일에도 얼마나 큰 마음들이 담길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었다. 일회용 식기와 비닐 포장 속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희망을 지키려는 모두의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진심이 누군가에게 닿아 내게 다시 전달되었고, 나는 따뜻한 그 한마디 말 덕분에 고단하고 힘든 식사 준비에 더 책임감을 갖고 온 마음을 다할 수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반찬이 담겨 나가는 모습을 보며 가끔 주방에서 그 시간들을 떠올려 본다. 2021년은 내 생애 가장 차가운 겨울이었지만 가장 따뜻한 기도 했던 겨울이었다.

월남전 참전용사이신 아버지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시면서 위암 말기라는 힘겨운 병마와 5년 넘게 싸워오셨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보훈병원까지 오가는 길은 늘 버겁고, 아버지의 기력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족 모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겪으셨던 전쟁의 상처와 국가유공자로서의 자부심을 자주 이야기해 주셨던 기억이, 지금은 부모로서 지켜드려야 할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서울보훈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을 때 의료진이 아버지의 과거 참전 이력과 고엽제 노출 내역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 의사의 꼼꼼한 상담과 진료 절차, 그리고 복잡할 수밖에 없던 각종 지원제도 안내까지 모든 과정이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전문 의료서비스와 임상적 지원 덕분에 아버지께서 치료 과정을 조금 더 견딜 수 있었고, 보호자로서 느낄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덜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투병이 길어질수록, 병원은 단순한 치료기관이 아니라 지난 역사의 아픔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주기적인 검사와 치료 과정, 투병 중 겪는 부작용에 대한 지원, 심리적 위안까지, 의료진과 사회복지사들 모두 '기억을 잇는 보훈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다른 참전용사 가족들과도 서로를 응원하고, 고단한 시간을 나누며 작은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힘겨운 날들 속에 서울보훈병원의 의료서비스는 단순한 의학적 치료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역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에는 보훈병원의 따뜻한 배려와 전문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족 모두가 조금 더 용기낼 수 있었고, 아버지 또한 나라의 기억 속에 잊히지 않는 존재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보훈병원을 오가는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감동의 사연'이었습니다. 고엽제와 위암으로 고통 받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보훈의 가치와 기억의 의미를 되새긴 시간이었기에, 이 소중한 경험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등불 [중앙보훈병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이셨다. 그러나 세월이 야속할 뿐이었다. 몸은 점점 약해지셨다. 다리 부상으로 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힘겨워 보이셨다. 그 무렵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중앙보훈병원을 찾았다. 그때가 아직도 마음 깊이 여운으로 남아 있다. 정형외과 대기실에서 의자에 앉아 계시던 외할아버지. 고개를 숙이신 채 잠시 숨을 고르며 계셨다. 나는 진료가 차갑게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문이 열리던 순간 그 불안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의사 선생님의 밝은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워주셨다. 마치 가족을 대하는 것과 같이 우리 외할아버지의 방문을 환영하는 듯했다. 다리를 살펴주시는 손길은 세심했다. 마치 오랜 벗을 대하듯 정말 따뜻했다.

잠시 전쟁 이야기를 꺼내신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려왔다. 선생님은 한순간도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라는 짧은 위로를 건네신 외할아버지. 그 한마디 속에는 담담했으나 깊은 울림을 받을 수 있게 충분한 위로가 되었다. 진료가 끝나갈 무렵이 되자 선생님은 외할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회복을 기원해주시기까지 하셨다. 그 순간 외할아버지의 얼굴에 번지던 미소를 보았다. 어린아

이처럼 순수하셨고 내 마음에 한결 오래도록 남고 있다.

그 후로 외할아버지는 다른 병원을 다녀오시게 될 때마다 보훈병원을 그리워하셨다. “거긴 참 고마운 곳이야. 거기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병원이 어디 흔하겠니.” 하시며 그리운 듯 웃으셨다. 병마와 싸우는 고단한 나날 속에서도 그 기억은 작은 등불처럼 외할아버지의 마음을 밝혀주는 것 같았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다. 외할아버지가 남긴 말씀처럼 우리에게 중앙보훈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다. 그곳은 외할아버지께서 행하신 헌신이 진정으로 존중받았던 자리이면서 마지막까지 따뜻한 위로가 전해졌던 공간이다. 난 앞으로도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 외할아버지의 환한 미소와 함께 남은 그 따뜻한 기억. 지금도 중앙보훈병원에 대한 깊은 감사로 내 마음 속에 별처럼 빛이 난다.

저에게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이 이어지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건강이 악화되셔서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낯선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그리고 다른 입소자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작은 관심과 배려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간호사분의 배려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 날 밤, 할아버지가 통증으로 힘들어하실 때 휴식시간을 쪼개 곁을 지켜주시며 “괜찮아요, 제가 함께 있어드릴게요”라고 말하던 모습은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간호사분과 눈빛만으로도 안심하실 정도로 친밀감을 쌓으셨고, 저 또한 작은 관심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이는지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훈병원에서 한 어르신이 군 복무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기억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의 참상과 동료들과의 우정, 나라를 위한 희생을 담담히 말씀하시던 눈가가 촉촉해지는 순간,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보훈병원이 단순히 치료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삶과 기억을 존중하고 이어주는 곳이라는 것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의료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마음의 안정까지 살피는 따뜻한 손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음악 치료, 미술 활동, 회상 치료 등은 어르신들에게 큰 즐거움과 활력을 주었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족으로서도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회상 치료 시간에 할아버지가 군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벅차 올랐습니다.

보훈병원과 요양원에서의 경험은 작은 배려와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사람의 따뜻함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의료 경험을 넘어, 사람의 마음과 기억을 이어주는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곳에서 느낀 진심 어린 손길과 따뜻함을 기억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보훈병원과 요양원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2018년. 할아버지에게 유독 길었고, 우리에게 한없이 짧았던 인생의 마침표

나의 할아버지는 국가유공자였다. 할아버지의 형님이셨던 큰 할아버지 또한 국가유공자이셨던 터라 두 분 형제의 나라에 대한 애정은 극히 남다르셨다. 6.25 전쟁 때 부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셨지만 그때의 상처는 아픈 상처가 아닌 자랑스러운 훈장이었고,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날의 의지로 버티며 살아오셨다.

할아버지는 갑작스레 찾아온 차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고, 인지능력 저하까지 겹치면서 너무도 이른 나이에 병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다. 대구보훈병원의 입·퇴원을 거쳐 요양원에 가셔야 하셨을 때 할아버지의 선택은 “수원보훈요양원” 입소였다.

경주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가까운 요양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였지만 할아버지는 한스코 보훈요양원 입소를 원하셨고, 당시 운영중이던 수원보훈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되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투병생활이 이토록 길어질 줄은.. 가족 모두 알지 못하였다.

그 이듬해 김해보훈요양원이 개원하면서 할아버지는 조금 더 가까운 김해로 옮기게

되었다. 그 곳은 주위에 논·밭이 많아 할아버지가 살던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휠체어에 앉아 지는 노을에 비쳐 마치 윤슬처럼 빛나던 보리밭을 지그시 바라보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 앞을 스치운다. 그리고 몇 년뒤 대구보훈요양원이 개원하면서 보훈공단과의 네 번째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진로를 탐색중이던 나의 누나는 병원과 요양원에서 받은 많은 분들의 세심한 돌봄에 감동을 받아 대구보훈병원에 입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연과 기적이 겹쳐지며 누나가 대구요양원에 발령을 받게되었고, 할아버지는 매일을 손녀가 챙겨주는 가장 좋아하는 단팥빵을 드시며 지내시게 되었다.

대구보훈병원에서 수술을 시작해 다시금 대구보훈병원에서 삶의 마침표를 찍기까지 약 20여년의 긴 세월.

어쩌면 네모난 병상안에서 너무나 긴 시간을 버텼을 나의 할아버지. 그리고 점차 발전하는 모습으로 그 긴 20년의 세월동안 할아버지를 품어준 보훈공단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은 하루라도 더, 할아버지를 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늦었지만 오늘 날 이 글을 통해 보훈공단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존경과 진심을 담아, 정말 감사했습니다.

보훈병원에서 근무하며 만난 H 어르신은 파킨슨병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셨습니다. 입원 생활이 길어지자 간병의 손길은 점점 줄었고, 어르신은 콜벨조차 누르기를 주저하며 굳은 몸으로 스스로 해내려 애쓰셨습니다. 그 모습은 안쓰럽기도 했지만, 꺾이지 않는 의지처럼 다가왔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날이면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오늘 와줘서 고맙다” 하셨습니다. 다른 직원들로부터 제가 없는 날에도 “그 선생님은 언제 오느냐”며 저를 기다리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기다림의 대상, 믿음의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제 발자국 소리까지 기억하셨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기 전에도 “○희 왔어?”라고 물으셨다 하니, 저는 그분께 하루를 밝혀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제 삶에도 따뜻한 관심을 주셨습니다. 사춘기를 겪는 아이 때문에 힘들다 하자, “엄마 마음도 많이 지친다”며 마치 어머니처럼 저를 위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시던 날에는 “나는 당신을 잊지 못할 겁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제 아이가 돌이 고, 큰아이가 고등학생이 된 사실까지 기억해주셨습니다.

퇴원 후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짧은 문장마다 담긴 진심은 환자와 직원간의 관계를 넘어, 인간과 인간으로 이어진 깊은 인연임을 일깨

워주었습니다.

H 어르신은 제게 보훈의 의미를 가르쳐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치료와 간호가 아니라, 서로를 기억하며 마음을 잇는 감동의 역사입니다.

보훈은 기억을 이어, 삶을 따뜻하게 밝히는 기다림입니다.

아버지의 발걸음을 따라

20년 전, 아버지께서 국가를 위해 복무하시다 바다에서 순직하신 후 우리 가족은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었습니다. 당시 학생이었던 저에게 ‘보훈’이라는 말은 어려웠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몇 년후, 일이 있어 보훈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집과 거리가 멀어 가기 어려웠던 그곳에 우연히 서게 된 것입니다. 병원 입구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이런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직접 진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저 그 자리에 서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벅찼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지키고자 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킨 나라가 이제 저희 가족을 보살펴주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한참을 서성거리고 있던 저를 본 경비원께서 “거기서 뭐 하세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인데,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 서있어요”라고 답했더니, “아,

그러세요”라며 따뜻하게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또 다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보훈병원은 단순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들을 품어주는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아버지가 걸으셨던 그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발걸음이 저에게도 항상 희망의 길로 이어져 있음을 그날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며, 보훈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5년 전 쯤,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에서 한 승객이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곧바로 의료 지원을 요청하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저는 중앙보훈병원에서 근무하며 배운 것과 병원에서 매년 받아왔던 CPR 교육 내용을 떠올리며 주저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침 외국인 의사 한 분과 간호사 한 분이 함께했고, 저희는 10시간이라는 긴 비행 동안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과 응급 구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환자분은 의식을 되찾았고, 도착 후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 환자분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가장 큰 감정은 환자가 살아나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함께, “내가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중앙보훈병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주신 CPR 교육 덕분이었다”는 깊은 감사함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 교육을 준비하고 가르쳐주신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노고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훈병원의 의료진분들은 바쁜 진료와 환자 돌봄 속에서도 직원들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매년 세심하게 CPR 교육을 준비해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일상적인 교육으로만 여겼지만, 그 배움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을 만들어 주었고, 제 가족들에게도 한 사람을 지킨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아버지로 기억

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CPR 교육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절차나 의무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과 삶을 지켜내는 힘이라는 것ですよ. 무엇보다 이러한 배움의 기회를 마련해주신 중앙보훈병원 의료진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 보훈병원에서 2020년 10월에 첫 걸음마를 시작하였습니다.보훈병원 환자들의 특성상 평균연령이 높고 특히 월남전 참전용사와 6.25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은 팔다리가 없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몸이 불편하셔도 도움을 먼저 청하기 보다는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단하다는 생각도 하고 반면에 작은 일에도 식구들에게 의지하려는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 환자분에게 느꼈던 가장 부끄러웠던 기억입니다. 62W에서 근무할때 두다리를 잃으신 김○래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0이 넘으신 연세에도 모든걸 스스로 하시려는 의지가 강한 환자였습니다.

몸상태가 아주 많이 안좋으실때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미안해서 어쩔줄 몰라하시는 소녀같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입원하신지 얼마 되지않아 몸상태도 좋지 않으신데 퇴원을 하신다 하여 이유를 여쭙어 보았습니다. “몸상태가 안좋으신데 왜 일찍 퇴원하세요?”, “요번 주말에 탁구대회가 있어~ 그래서 퇴원해야해~”

제 머릿속이 요동쳤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두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탁구대회에 나가시지?’ 저도 모르게 마음의 소리가 반사적으로 툭 튀어나왔습니다. “탁구대회요? 어디서요?”, “천안~~~” 순간 제 50남짓 짧은 인생에 50KG 망치로 두들겨 맞은듯 했습니다. 우와~~진짜로~~ 대단하다, 경이롭다, 존경스럽다. 이세상에서 쓸수있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제 감정에 취해 만끽할 시간도 없이 또다시 100KG 망치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바로 옆침대 환자분이 하시는 말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10초 였습니다. “두다리 없는 다리병신이 무슨 탁구대회여?” 저에게는 소중한 직장이여서 중립을 지켜야하는데 순간 욕해서 참을수 없었

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회에 참가하는 자체만으로도 대단하신데요.” 순간
욱해서 참지 못한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외래진료 오시면 자주 뵙는데 여전히 존경합니다. 김○래 어르신~ 건강하세
요.

“당시 나는 눈이 부어 노원구에 있는 안과에 방문하였는데, 우연히 그곳에서 참전용사를 만나게 되었다. 처음엔 그곳이 보훈 위탁 병원인지도 몰랐지만, 대기실에는 어르신들이 많았고 그중에서도 ‘6.25전쟁 유공자’라고 적힌 모자를 쓴 어르신이 유독 눈에 띄었다. 궁금한 마음에 다가가 참전용사이신지를 여쭙니, 그분은 “어릴 때 총을 쏜 건 않았지만 한국전쟁에 나갔고, 나중엔 월남전에도 다녀왔다”고 하셨다. 순간 그분의 삶이 궁금해져 정중히 인터뷰를 청했고, 2주 뒤 옥탑방의 작은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어르신은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한국전쟁에 나서게 된 계기부터 들려주셨다. 당시 배고픔과 궁핍으로 하루 끼니조차 어려웠기에 ‘어차피 굶어 죽을 바엔 군에 가면 밥은 먹겠지’ 하는 마음으로 미군 트럭에 몰래 올라탔다고 한다. 그렇게 강원도 금화의 ‘KSC 지계부대’에 소속되어 밤낮없이 식량과 탄약, 식수를 훔쳐지고 산길을 오르내렸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죽음의 공포를 겪었고, 총상을 입은 전우를 업고 내려와 목숨을 살린 경험을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으로 말씀하셨다. 전후에는 폐허 속에서 나라가 점차 발전하고, 전쟁 없이 후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했다고 하셨다.

하지만 못내 아쉬운 현실도 털어놓으셨다. 두 전쟁에 모두 자원해 참전했음에도 국가는 복수 인정을 해주지 않고, 참전수당은 고작 월 45만 원에 불과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보훈 병원 이용에서 진료비는 부담이 없지만, 정작 약값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그것조차 큰 짐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참전의 자부심조차도 현실의 벽 앞에서 무게를 더하는 셈이라는 것을 느꼈다.

보훈 병원에서의 어르신과의 만남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 시간은 나에게 전쟁의 비극과 희생뿐 아니라, 그 속에서도 피어오른 자부심과 오늘날 여전히 남아 있는 어려움을 함께 마주하게 해주었다.

22년 전, 신규 간호사 시절의 일입니다.

그때 제게 큰 힘이 되어주셨던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종종걸음을 걸으셨고 말도 서툴렀지만,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근무 때마다 과자며 음료수를 챙겨주시며 “고생 많다”는 마음을 전해주셨고, 저는 그분 덕분에 두려움 많던 신입 시절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근무 중이었습니다. 환자들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주사를 놓고 있는데, 평소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던 한 환자분이 갑자기 자신을 먼저 보라며 고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달래드렸지만 분노는 커졌고, 결국 그 환자분이 침상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휘두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놀라움에 몸이 굳어버린 순간, 제 앞을 막아서며 저를 지켜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파킨슨 환자분이었습니다. 발음은 분명치 않았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우리 간호사에게 그러지 마라.”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도 불편한 몸이면서, 저를 위해 용기를 내셨던 그 모습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그는 병실의 ‘영웅’이 되었고, 제 마음속에서는 지금도 영원한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

10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오늘도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간호사에게 그러지 마라.”

그 짧지만 뜨거운 한마디가 제 간호사 인생을 지켜주었고, 지금까지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저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할머니이자, 어머니이자, 아내이자, 딸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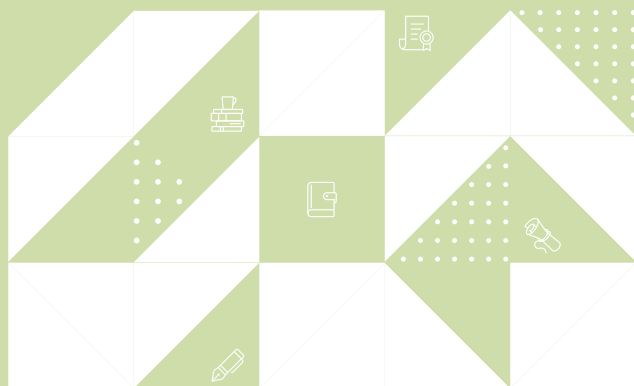
저는 오늘도 보훈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누군가의 딸이자 손녀로 지켜지고 보호받는 입장이지만, 이곳에서 저는 삶의 무게와 따뜻한 마음을 배워갑니다.

환자 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는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개인 간병인인 보호자입니다. 잠시 화장실에 가거나 음식을 준비할 때를 제외하면 하루의 거의 모든 시간을 환자와 함께합니다. 그들 역시 대부분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할머니입니다. 개인주의가 짙어진 요즘, 길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어도 모른 척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 이곳의 보호자님들과 간병사님들은 서로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의지하는 동지이자 친구입니다. 환자를 목욕시킬 때 서로 도와주고, 미용 일을 하셨던 분은 병동의 이발사가 되며, 간병 경험이 많은 분은 처음 시작한 이의 든든한 스승이 됩니다. 또 환자를 떠나 보내며 슬픔에 잠긴 보호자의 곁은 다른 보호자가 지켜주며 함께 울고 위로합니다.

병동은 마치 작은 마을처럼 움직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환자를 돌보는 데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서로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며, 남의 아픔을 내 일처럼 보듬는 곳, 바로 이곳이 보훈요양원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어도 일상이 감동이 되고, 그 평범한 일상이 추억으로 남습니다. 언젠가 저 또한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할머니가 되어 이 작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 이곳에서 배운 마음과 경험은 제 안에 소중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보호,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
수상집



고관절이 골절된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했다. 90대 초반의 한국 전쟁 참전 유공자분이었는데, 집에서 홀로 지내시는 분이라고 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보호자가 없어 상당히 고민스러웠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병원에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환자 관리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니 원무부장님은 지방 보훈청에 연락을 취했고, 그 동안 할아버지를 보살펴주셨던 “사회복지사”분과 “재가보훈실무관”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재가보훈실무관”께서 환자의 자녀 중 따님 한 분과 그동안 연락을 주고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님의 성함과 연락처를 전해 받은 원무부장님은 따님과 통화하였고, 다음날 병원에 오겠다고 마지못한 듯한 약속을 잡았다. 다음날 약속된 시간이 한참 지나, 긴장하고 어색한 표정의 중년 여성이 진료실에 나타났다. 할아버지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채 마치기도 전에 따님이 울기 시작했다. 그동안 얼마나 아프고 거친 시간을 살아 왔을지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다 이야기해주는 것 같았다. 서로 이야기하고, 정적이 흐르고, 흐느끼고, 울부짖고, 눈물을 쏟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따님은 깊게 숨을 한번 내쉬고 나서는 수술을 부탁한다고 하시며 보호자로 결정과 역할을 하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 했다. 성공적인 수술 후 위기가 찾아왔다. 식사량이 줄며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낮은 혈압과 호흡곤란으로 환자가 힘들어 했다. 서둘러 환자를 중환자실로 이동시키고, 집중 치료를 시작했다. 그동안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간호는 물론이고 할아버지의 체위를 변경시키고 식사를 돕고 용변 처리를 하며 돌봤다. 중환자실 입실 5일째, 환자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중환자실을 나왔고, 다음날 병실에서 위커에 가볍게 팔을 의지하고 두다리로 붙끈 일어섰다. 할아버지

의 처한 현실에 함께 안타까워하며 탄식했던 같은 병실의 환자들은, 자기 일인양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통합 간호 병동의 간호사 보호사분들은 천사처럼 할아버지의 회복에 최선을 다했다. 할아버지의 길고 힘든 회복 과정에는 병원의 사회사업실이 나서서, 뉴케어 영양식 지원, 집중 재활을 위한 보장구와 간병인 지원 도움을 받도록 힘써 주셨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지원하여 참전하셨고, 군 복무를 마치고 택시와 화물차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셨는데,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여러 일을 겪으며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었고 어느새 30년이 넘어간다고 하였다. 이후 나이가 들어 더욱 생활이 어려워졌는데, 보훈부의 참전 유공자 발굴사업을 통해 참전 유공자로 인정이 되었고, 보훈شم김이 제도를 통해 가사활동이나 건강관리 등에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혼자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훈شم김이의 도움으로 견디실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도 하지 못했던 절연한 가족과의 관계 유지를 보훈 شم김이께서 해주셨던 것이다.

2024년 9월, 국가직 청원경찰 최종 합격 후 신체검사를 위해 부산보훈병원을 찾았다. 가슴이 벅차면서도 낯선 공간에 긴장된 마음으로 검진을 마친 후, 서류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일 때였다.

그때, 내 옆자리에 조용히 앉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모자에는 ‘국가유공자’라는 글씨가 선명했고, 옷차림은 단정했다. 조용히 나를 보시던 그분은 “나는 월남전에 참전했었어요”라며 먼저 말을 건넸다.

놀라움과 존경이 동시에 밀려왔다. “정말 존경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리자,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며 “이제는 젊은 친구들이 나라를 지켜주니 든든하지”라고 말씀하셨다.

그날 할아버지와 나는 대화는 짧았지만 깊었다. 전쟁터에서의 참혹했던 기억, 전우들의 이름,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날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묻어두고 지금은 후배 세대의 안녕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계셨다.

내가 ‘청원경찰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자, “그래, 국민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될 거야. 네가 있어 참 든든하구나”라는 말씀이 돌아왔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다.

병원은 치료의 공간이라 생각했지만, 그날의 보훈병원은 기억을 이어주는 공간이었다. 누군가의 헌신을, 또 다른 누군가가 이어받는 자리. 나는 그곳에서 단순한 신체검사가 아닌, ‘국가를 위한 책임’의 무게를 느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따뜻한 손을 흔들어 주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국가유공자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수많은 희생과 용기,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지켜 주는 보훈병원.

오늘도 누군가는 기억을 지키고, 누군가는 그 뜻을 이어간다. 그리고 나 역시, 그 바통을 이어받은 한 사람으로서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나를 일깨운 기억의 기록

내게 봉사란 늘 어떤 형식적인 의무였다. 사회가 규정한 선한 행위의 목록을 채워 넣는 것. 보훈병원에 가는 발걸음도 그랬다. 코끝을 스치는 소독약 냄새와 열은 소음이 흐르는 복도는 내게 그저 낯선 세계였다. 나는 그곳에서 나이 든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의 눈빛에는 수많은 계절이 쌓여 있었지만 나는 그저 어른신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그들의 삶을 멀리서만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한 분의 손에 시선이 멈췄다. 창가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바깥을 보던 할아버지였다. 그의 손은 평범하지 않았다. 시간의 무게로 깊게 파인 주름과 굳은살,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떨림까지. 나는 무심코 그 손을 응시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손은 단순히 늙은 손이 아니라는 것을. 이 손은 포탄이 쏟아지던 전장에서 총을 움켜쥐었고,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전우의 상처를 감쌌으며 전쟁이 끝난 후 다시 평화로운 삶을 일구어낸 손이었다.

그분과 나는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고 그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어떤 웅장한 서사를 느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손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들이 그의 삶을 증언하고 있었다. 그것은 교과서 속의 활자나 텔레비전 속의 영상으로 보던 역사가 아니었다. 살

아있는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숨 쉬는 기록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봉사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다. 내가 그곳에서 하는 일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행위가 아니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침묵을 들으며,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삶의 무게를 마주한다. 나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존재 자체로부터 위로와 깊은 가르침을 얻는다. 그들의 희생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조용히 그러나 깊게 스며들어 있었다.

이제 나는 매주 그곳을 찾는다. 나의 발걸음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시대를 건너와 나에게 전해진 무형의 감동에 대한 나의 진심 어린 답장이자, 그들의 삶을 기리고 기억하려는 나의 작은 다짐이다.